

벤처경영 -창업에서 초일류기업으로-*

한 정 화**

현재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의 지를 천명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수행중에 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1986년 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과 지난 십여년간 50여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수년간 성공적인 벤처기업이 나타나고 이들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높은 자본소득을 실현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벤처기업을 어떻게 창업하고 경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의 축적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장우교수의 [벤처경영]은 시의적절한 연구업적 및 교과서로서 의의가 크다.

세계에서 벤처기업의 성공사례가 활발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따라서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축적된 벤처기업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벤처기업 환경은 여타 선진국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축적된 이론을 한국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에 관한 현상파악부터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성공, 실패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미비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대학에 벤처창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개설의 양적 증대에 비해 좋은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역사도 짧고 연구도 부족하여 교육에 활용할 만한 사례개발도 잘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창업교육의 애로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

* 이장우(매일경제신문사, 1997)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하여 성공벤처기업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인 경영형태나 성장과정에서 애로요인, 그리고 성공 및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책은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상세히 기술한 사례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교과서와 구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벤처창업 교육교재로서 활용도가 높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벤처기업들이다. 이장우 교수는 오랫동안 벤처기업의 경영자문을 해오면서 이들 기업의 성장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왔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한국 벤처기업의 내부적인 현실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상적인 기업소개에 그치지 않고 벤처기업의 내부적 특성과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메디슨을 비롯한 몇개 기업의 사례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이들 기업의 성장과정과 전략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

또한 이장우 교수는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본인의 전공분야인 전략과 조직의 이론을 바탕으로하여 벤처기업의 경쟁전략 및 조직전략에 대한 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전과 목표설정, 전략수립, 조직관리, 리더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에서의 경영관리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서의 특징중의 하나는 동기부여 방법을 소개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동기부여 방법과 함께 한국적인 동기부여인 신바람 관리기법을 대비해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내용은 이장우 교수와 이민화 사장의 공저인 [혼경영]의 연구를 일부 소개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의 리더쉽과 동기부여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또한 창조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창조성은 벤처기업의 핵심성공요인의 하나다. 그간 창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창조성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창조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의 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또다른 유용성은 책의 말미에 제시된 몇가지 특수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내벤처는 한국대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 계발을 위하여 최근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연구분야다. 아직 이에 대한 사례나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국제화도 비교적 새로운 이슈로서 이 책을 통해서 유용한 사례와 이론들을 접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해외의 벤처기업 성공요인이나 실패요인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시사점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책의 구성과 내용을 벤처기업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전략이론, 조직이론, 기업문화, 리더쉽 및 국제경영이론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된 것은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벤처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기 는 하지만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은 책의 전체맥락에서 벗어난 느낌을 준다. 독자의 입장에서 벤처기업경영이라는 중심주제를 따라 가는데 다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이나 조직, 기업문화, 리더쉽에 관한 기존 이론의 소개시 벤처기업에 초점이 명확히 맞추어진다면 이 책의 구성이 보다 짜임새가 있어 보일 것이며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처음 소개된 벤처경영에 관한 교과서인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벤처기업 경영을 이해하는데는 어떤 책보다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양한 시각에서 벤처기업 경영의 주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 사례를 풍부히 다루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실무자에게는 물론 벤처기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담당자들에게도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항들은 향후 저자 자신에 의해 보완되거나 다른 벤처경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에 등에 의하여 보완될 것이다. 모든 일이 시작이 어렵듯이 벤처경영에 관한 이론과 지식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저작이 나온 것은 앞으로의 동분야 발전의 초석으로서 의미가 크다.